

지역 노동자와 함께, 일과 삶의 곁에

# 충남지역 노동단체네트워크

04	여는 말   연대의 인사
06	네트워크 소개
16	지역 노동자의 목소리
32	지역 노동단체 후원 캠페인
34	함께 만드는 손피켓

참여단위 소개카드

“아직도 노동조합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노동이 없이는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지만 그들의 권리는 온갖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알바, 청년, 이주노동자 등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각 부문의 노동단체들이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동지들이 후원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 문용민

“우리 모두의 내:일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촘촘하고 따뜻하게 노동자와 현장의 결을 지키는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덕분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더 넓고 강한 연대, 더 다정한 연대로 노동자들의 결, 그리고 그 결을 지키는 이들의 결이 되겠습니다!”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가혜

“노동운동을 노동조합운동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남에도 곳곳에 우리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단체, 노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려 노력하는 단체, 만리타항에 온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노동자의 몸과 마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단체 등등. 모두들 씩씩해 보이지만, 가끔은 힘을 때도 있습니다. 연대만이 노동을 더 풍부하게 하고 노동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연대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장 방효훈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노동안전, 이주노동, 청(소)년 노동, 노동예술 등  
우리 노동의 다양한 의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역 민간단체들과  
광역·기초단위 지방정부 노동자 중간지원 조직들이 함께 모여,  
2020년 3월 31일,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 일을 멈출 권리, 일을 멈추고도 생존할 권리,  
더는 누구도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 사회,  
국적과 인종, 나이와 성별, 성적 지향 등 사회적 분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계,  
일하는 모두, 일을 멈춘 모두가 존엄한 일과 삶을 고민하는 우리들은,

연대의 힘으로, 지역과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연대의 힘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일과 삶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고, 실천하려 합니다.

Vorwärts und nicht vergessen,  
worin unsere Stärke besteht!  
Beim Hungern und beim Essen,  
vorwärts und nie vergessen:  
die Solidarität!

전진, 그리고 잊지 말라,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전진, 그리고 잊지 말자.  
연대를.

—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사, 한스 아이슬러 작곡,  
'Solidaritatslied'(연대의 노래) 중에서



### 정기회의와 워크숍

연 2회 이상 정기회의와 의제별 상시 논의를 통해 지역과 한국 사회의 노동 현안을 돌아보고, 실천 과제를 함께 기획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함께 모색합니다.



### 감염병, 폭염, 혹한 등 기후재난 관련 노동안전 활동

코로나19와 폭염, 폭한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난 시기,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련 노동상담 매뉴얼을 수립하고, 노동상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상담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 현실을 공론화하고, 실효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 노동기본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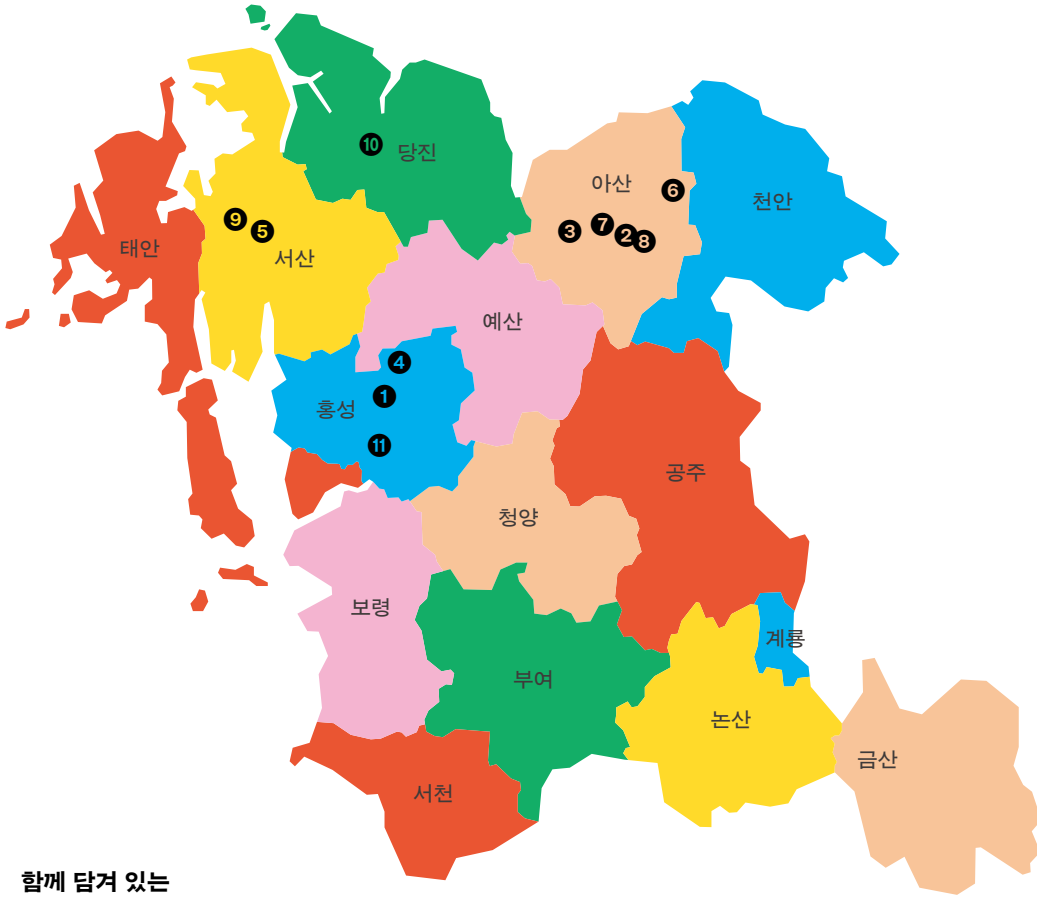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 지원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사업, 재난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다언어 지원 체계 구축, 다언어 노동교육 영상 제작 및 다언어 노동기본권 캠페인 사업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참여단위



함께 담겨 있는  
 낱장의 단위별 카드를 찾아,  
 자세한 정보를 살펴봐 주세요.



❶ (사)홍성이주민센터  
[hsmigrants.com](http://hsmigrants.com) / 041-631-2310



❷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drggam.org](http://drggam.org) / 041-549-5770



❸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y-lrights.campaignus.me](http://y-lrights.campaignus.me) / 041-547-0811



❹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cnnodong.net](http://cnnodong.net) / 041-633-5570



❺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울터  
[cnwcenter.org](http://cnwcenter.org) / 041-663-7780



❻ 충남근로자건강센터 /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cnlhc.or.kr](http://cnlhc.or.kr) / 041-522-8993



❼ 아산이주노동자센터  
[amwc.kr](http://amwc.kr) / 041-541-9112



❽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asanct.co.kr](http://asanct.co.kr) / 041-534-3626



❾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laborsb.net](http://laborsb.net) / 041-667-9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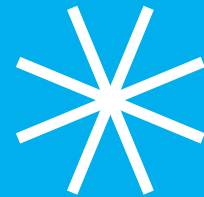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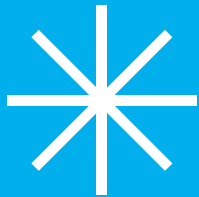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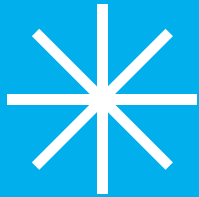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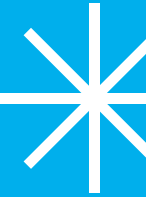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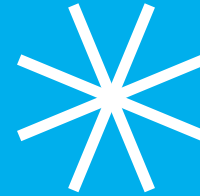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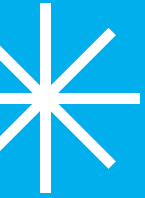
❿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labordj.or.kr](http://labordj.or.kr) / 041-356-2200



⓫ 노동문학관  
[ndmhg.co.kr](http://ndmhg.co.kr) / 041-642-9507

## 지역 노동자의 목소리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함께한  
지역 노동자들의 경험들, 바람들



# 지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최병률

노동안전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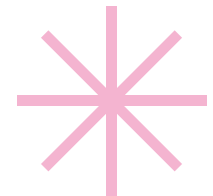
저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 2부장 최병률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여러 사내하청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강 제품을 뽑아내는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정비 업체, 여러 조업을 지원하는 부서, 천장 크레인 운전처럼 생산된 제품을 출하하거나 압연 작업과 관련된 롤러를 보수하고 연마 가공하는 일 등 제철소 곳곳에 다양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2008년 3월, 칠우엠케이라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현우테크로 업체가 바뀌었죠. 현대제철 등 현대차 계열사들은 불법과건 문제가 심각하고, 하청업체를 주기적으로 통폐합하면서 관리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소속 업체들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저는 기계 정비 등 제철소 설비를 담당하는 일을 해왔고, 2012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 인정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입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많고, 특히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여러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움터'를 만났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시는 걸 알게 되었죠.

중대재해, 여러 산업사고가 일어나면 '새움터' 동지들과 함께 현장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경우, 월 1회 지부 내 각 지회들의 노동안전 담당자가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때 '새움터'에서 현장의 안전과 보건, 노동자 건강권 등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모두 생계 수단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위한 이 노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위험 요인이 노출되어 있고, 때문에 이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나 재해를 입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움터'의 활동은 그런 재해 대응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런 피해와 사고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새움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부터 알려주고, 틀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노동안전 보건의 체계를 세워주는 진짜 세움 터예요. 이런 동지들이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조직,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 승인이나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적 전문성을 요하는 여러 도움이 필요한데, '새움터' 동지들은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 대처 과정의 도움뿐만 아니라, 현장의 유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위험성을 줄여서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의 노동안전 보건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단체입니다. '새움터'의 활동이 지역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움터'를 비롯해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의 다양한 노동단체 모두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가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요즘에는 여성, 청소년, 기후 문제 등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를 위한 여러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죽음의 제철소, 죽음의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철소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움터'와 같은 지역 단체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의 여러 단체들, '새움터'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동지들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철소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히 사람이 죽었구나 볼 게 아니라, 왜 저기서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이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 중심으로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개선하는 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이주민 통역활동가 이유진

이주노동 | 흥성이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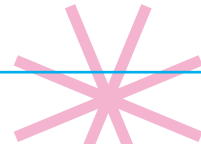


흥성이주민센터에서 러시아어와 영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후후에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해 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2018년부터 통역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통·번역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흥성이주민센터에서 통역 활동을 요청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성이주민센터는 토픽수업을 들으러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통역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병원, 경찰서, 노동 기관인데 노동법이나 의료에 관한 용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중한 상태의 환자를 통역하게 될 때엔 의사의 진단 내용을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전하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와선 다른 통역활동가들과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안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없는 연락으로 일상이 힘들 때도 있지만, 밤 12시 넘어 걸려 오는 전화들은 대부분 의료원에서 오는 연락인 경우가 많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2016년 입국하여 한국어를 몰라서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통역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언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흥성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과 흥성군을 연결하는 연결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나 예방접종 관련 지원 등으로 지역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센터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센터에서는 러시아, 영어,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가 통역활동가로 활동했는데 통역비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 공장 등으로 취업하고, 현재는 5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통역지원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역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역을 다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흥성이주민센터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노동법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타 지역 통역활동가 사례 나눔 스터디, 통역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이재춘

노동기본권, 공동주택 경비노동 |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저는 당진지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재춘입니다.  
지역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당진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B팀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로 일을 한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즈음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경비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모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 테이핑 강좌 등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3개월마다 열리는 경비노동자  
정기 모임도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과 여러 활동가들이 지역의 아파트를 바빠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하니 지역의 경비노동자들도 많은  
호응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 지역 청소년 노동자

청(소)년 노동 | (사)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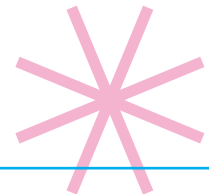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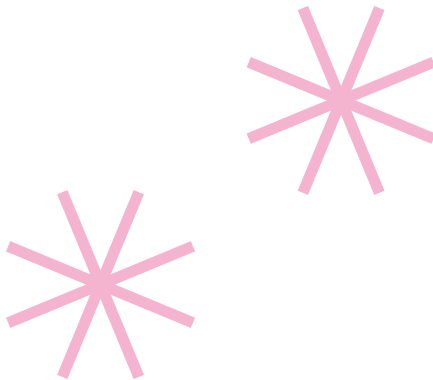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입니다. 1년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시급 미달과 미지급 임금이 있어서 학교에 방문하신 노동인권상담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방문해주신 신아롱 국장님 덕분에 용기를 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나아가는 모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노무사, 변호사님과 처음 대화하려니 무척이나 긴장되었지만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주셔서 더욱 믿고 기다릴 수 있었고, 최대한 제 권리를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그동안 일한 편의점이 문을 닫고 사장님이 사라졌을 땐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락이 닿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방문해주신 덕분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이 알려지고, 낮은 문턱으로 더 많은 학생들과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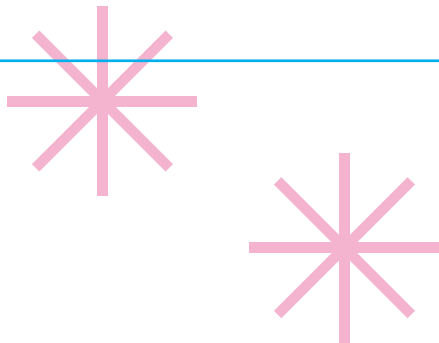
# 지역 예술노동자 배인석

노동예술 | 노동문학관



노동문학관 건립위원회에 참가하였고 건립 이후에는 노동문학관 이사를 맡고 있는 배인석입니다. 미술 창작과 문화 예술기획 등을 하고 있으며 요즘은 그림 그리는 회사 <공간어쩌다보니>에서 젊은 작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문학관은 작가와 작가, 작가와 참관자, 작가와 기획자, 작가와 평론가의 소통은 물론 그들의 창작 및 전시를 통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문학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이 분야에 관련된 일과 젊은 세대와 예술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문학관은 매년 노동예술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2022 노동예술제의 주제는 <나너, 플랫폼 노동>이었습니다. 플랫폼 노동 중 구체적인 주제는 당면한 사회문제이고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라이더 노동이었습니다. 이 라이더 노동에 덧대 문승영 디자이너의 '나너' 작품을,



주체와 객체를 인식하고 인권적인 성찰과 명상을 품도록 대입하여 예술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고쳐 보려는 노동예술제입니다.

**정치는 큰 도구이고, 예술은 작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구인 정치가 고장 나면 작은 도구인 예술을 이용해 고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큰 것이 아무리 크게 고장이 났더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1일을 중심으로 노동예술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지만 예술제가 제시하는 주제가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술제 관련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충청남도 밖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 사회복지노동자

감정노동, 사회적 돌봄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저는 아산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로 일한 것은 어느덧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는데,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를 알게 되었고, 노동상담과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 시간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지원을 하는 다양한 기관을 경험했어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의 경우, 상담을 진행하는 노무사님의 소통이 다른 곳보다 빠르고 원활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후 대처에 대한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의 '모두

나: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심리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심리상담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괴로운 경험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환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죠. 저는 '모두:나선'의 상담 거점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기도 하고, 사측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경우, 영리 목적이 큰 조직도 아니고, 직원이 많지 않은 작은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처 방안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동상담과 심리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영리 영역에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찾는다가,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의 활동들이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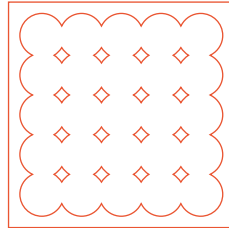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주변의 지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용기를 내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노동단체 후원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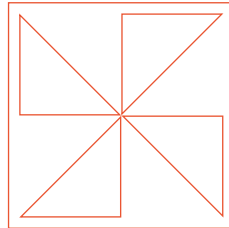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단체들이 재정 자립을 이루고,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너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좋아요! 후원을 한 단체 패턴에 색을 칠해주세요. 6개 단체 패턴에 모두 색을 칠했다면 사진을 찍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해시태그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단체후원인증'을 달아 인증샷을 남겨 주세요. 추천을 통해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여러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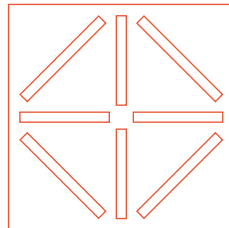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우리는행 1005-803-422395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정기후원 신청 : [cnwcenter.org/후원하기](http://cnwcenter.org/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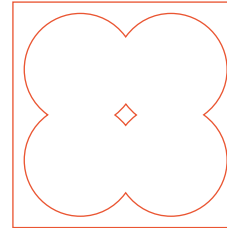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농협 465-01-187556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정기 후원 신청 : 041-541-9112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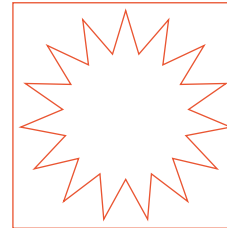
**노동문학관**  
농협 301-9203-9507-61  
(노동문학관)  
정기 후원 신청 : [ndmhg.co.kr](http://ndmhg.co.kr)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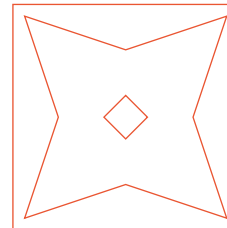
**홍성이주민센터**  
농협 351-1169-9981-13  
(사단법인 홍성이주민센터)  
정기후원 신청 : 041-631-2310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농협 351-1196-4491-43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정기 후원 신청 : [drggam.org](http://drggam.org) '후원 안내' 페이지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농협 301-0208-2441-81  
(사단법인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정기 후원 신청 : 041-547-081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함께 만드는 손피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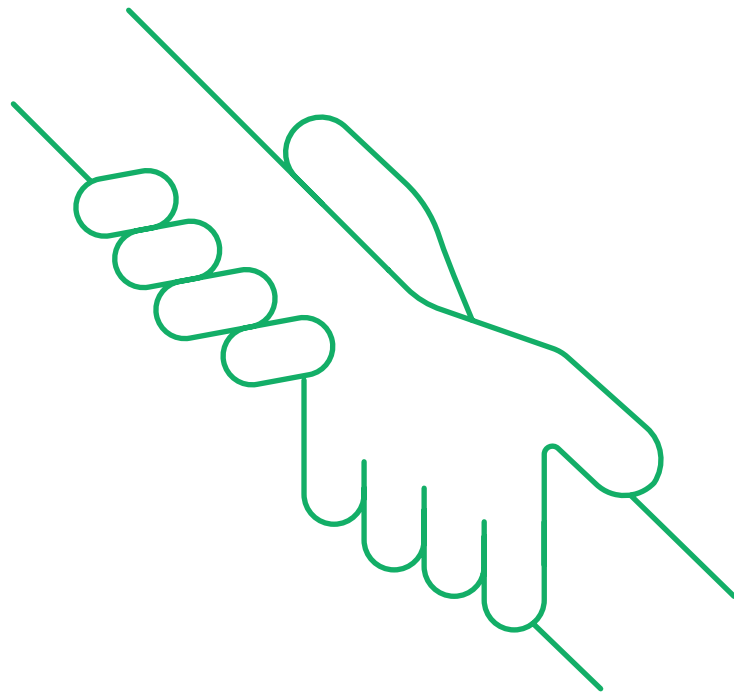
노동조합할 권리, 노동안전,  
기후정의와 노동, 차별과 소외,  
이주노동의 권리, 지방정부 노동정책 등  
우리 지역 노동자가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문장에 담아  
손피켓으로 만들었습니다.

일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손피켓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공유해주세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  
페이지에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적어  
나만의 손피켓을 만들어 보아요.

# 일하는 모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노조법 2·3조 개정!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안전  
#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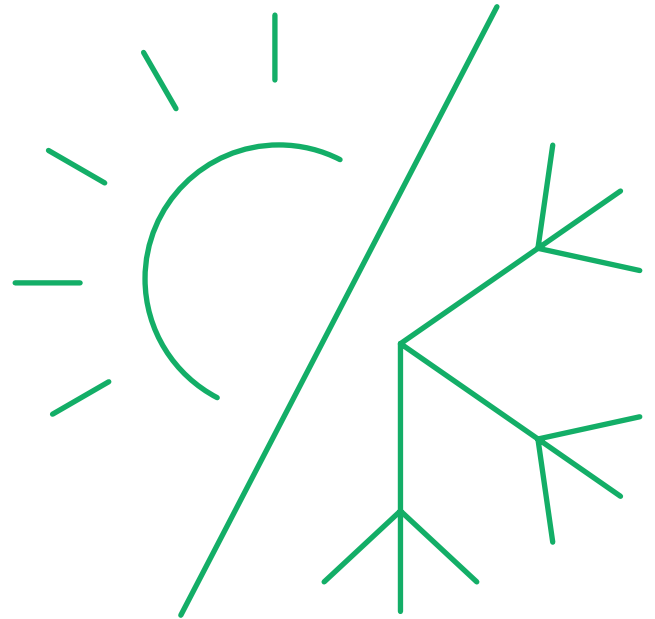
# 이윤보다 인간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노동기본권 #노동조합할 권리  
# \_\_\_\_\_ # \_\_\_\_\_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를!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기획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 \_\_\_\_\_ # \_\_\_\_\_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계를!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평등 #다양성 #차별금지  
# \_\_\_\_\_ # \_\_\_\_\_



**이주노동자도  
사람, 우리,  
노동자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모두의 인권과  
노동권을!**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이주노동  
#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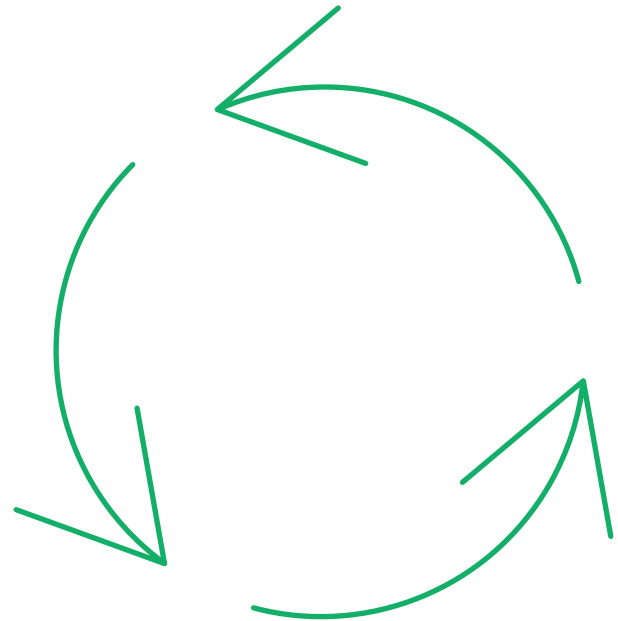
**지역 노동자  
고유의 현실에서  
출발한  
지역 노동정책을!  
일하는 모두,  
일을 멈춘 모두의  
일과 삶이 존엄한  
지역사회를!**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노동 #지방정부노동정책

# \_\_\_\_\_ # \_\_\_\_\_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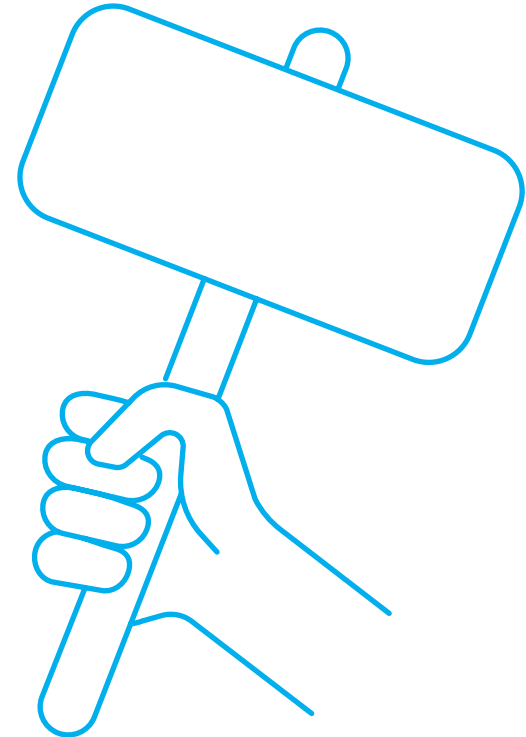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 \_\_\_\_\_ # \_\_\_\_\_

# \_\_\_\_\_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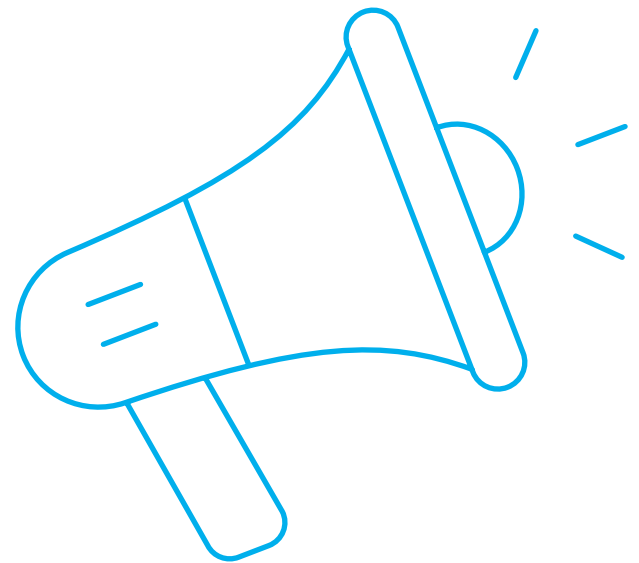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노동기본권 캠페인

# \_\_\_\_\_ # \_\_\_\_\_

# \_\_\_\_\_



지역 노동자와 함께

일과 삶의 곁에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발행처 | 충남지역노동단체네트워크

발행일 | 2022년 12월

기획과 집필 | 김지양, 남지현, 류민, 신아롱, 최진일

편집 | 김지양, 남지현, 류민

디자인 | 물질과 비물질

인쇄 | 인타임